



경찰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여야, DJ 100주년 기념식 집결...“분열 아닌 국민통합 이뤄내야”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노로 미래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집결해 화해와 통합의 'DJ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양극단의 '증오 정치' 타파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들은 분열이 아닌 관용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DJ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금의 정치는 대립과 반목, 편 가르기, 분열에 빠져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분열 국민 통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치가 나라와 국민의 발목을 잡고, 불신과 증오

리고 적대감이 만연해 있다"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국민적 통합과 결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상 전 국회의장도 "김 전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여야와 지역, 세대를 넘어선 대통합 대통령이였다"며 "오늘을 계기로 김 전 대통령이 이룩했던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한동훈 "DJ 시절 화합 경험"...이재명 "위기의 민주주의, 하나 돼 지키자" 한총리 "통합의 시대 열 것"...文, DJ 유언 들며 야권 통합 당부 관용·화해 다짐에도 장외에선 일부 극성 지지자들 고성 '눈살'

정부와 여야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자러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각별한 마음을 담아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의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님 유산을 깊이 새기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신뢰와 통합의 시대를 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에 자기 가족도 동참했다면서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김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해냈다"고 평가했다. 홍기 피습 사건으로 입원 치료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평생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

의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었다"며 "싸우지도 지키지도 않고 하에서 감이 떨어지듯 민주주의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 뜻을 모으면 할 수 있다. 하나가 될 때 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끊임없는 보복의 정치, 편협한 이념 정치로 국민통합도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4월 총선을 앞두고

고 야권 통합을 당부한 것으로 격이 있다고 늘 강조했다"며 "나도 그분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말미에는 김 전 대통령의 과거 모습을 본떠 만든 '홀로그램 연설'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그의 육성으로 물론 연설시 특유의 손짓도 재현됐다. 홀로그램으로 '환생'한 김 전 대통령은 "자유가 들쭉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대중재단은 이날 참석자 규모를 약 5천명으로 추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념식장에서 관용과 화해를 다짐했지만, 정작 행사장 바깥은 양당의 일부 극성 지지자와 유튜브들의 고성으로 얼룩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송원기 기자

범행 전날 이재명 습격범 차 태워준 지지자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분 전환 안 해 공범 가능성은 작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 씨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주는 단순히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그의 행적은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경 부산 가덕도에서 10여km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 도착할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 출신 김씨가 부산 지리에 어두운 상황에서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을 개연성이 있



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를 불러 조사를 끝냈다"며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최규영 기자

북, 연평도 북방서 이틀 연속 해안포 발사...NLL 북쪽 떨어져

북한군이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5시경 연평도 북서방에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들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역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



곳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로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오석준 기자

건설이 만든 **금융**
www.cgbest.co.kr

Moody's A2
FitchRatings A
A.M. Best A

대한민국 건설산업 더 높고, 더 멀리

건설을 든든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건설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건설을 바꿉니다. 일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내일을 보증합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59년간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철도·공항 등 공공시설부터 주택·공장·오피스빌딩 등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삶의 터전이 적기에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건설보증과 공제(보험)사업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상담 1588-1444 공제 가입문의 02-3449-8946 건설회관 임대문의 02-3449-8686
건설경영연구원 043-850-4523 세종로빌딩 044-861-5678

CC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尹 “혁신적 R&D는 돈 얼마 들든 지원…AI·바이오·양자 투자”

“우수한 기관 집중 지원하려 R&D 구조조정…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치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피우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 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특히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

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수한 기관에 연구비를 집중 지원해 세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R&D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연구팀에 정부 예산이 적극 지원될 수 있게 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현장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수석을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7년 만에 행사에 참석했던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 입국과 기술 자립의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하신 곳”이라며 “그 무렵 전 세계 개발도상국 가운데 과학기술 전담 장관을 두고 과학기술을 지원하

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와 또 도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전쟁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한 모든 국가는 그 기간에 반드시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저의 부친을 따라서 서양식의 사택을 따라가 보고, 오래된 한옥에 살던 제가 저도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꿨던 곳”이라며 개인적 일화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송원기 기자



대학생진보연합 20명 용산 대통령실 진입 시도하다 연행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대진연 회원 20명을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중 11명은 검문소를 넘어 들어갔고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돼 연좌 농성을 벌이다 모두 체포됐다.

대진연은 이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연행을 거부하며 거세게 저항

했고 호송버스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며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용산·마포·관악·송파경찰서에 이들을 분산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진연은 지난해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용산 미군기지 안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역사 관련 발언을 규탄하며 지난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2019년 나경원 전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 윤혁찬 기자

괌 관광객 피살에 한인사회 충격 속 애도…”있어서는 안될 일”

코로나19·슈퍼 태풍 이어 총기사고까지…괌 관광업계 잇단 악재에 ‘우려’

미국령 괌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괌 교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임홍순 괌 한인회장은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을 전했다.

임 회장은 “교민들도 뉴스를 보고 다들 깜짝 놀라며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교민회 차원에서 유가족을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며 일단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이용이나 렌터카 이용 상황 등을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큰 동요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광객들에게 “해가 진 뒤에는 어두운 곳은 가급적 걸어 다니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괌 경제에서 관광업 비중이 크고 전체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괌 정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한인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 관련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지 교민들은 이번 일이

괌 관광업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도 우려하고 있다. 괌 한인회에 따르면 괌에 거주하는 한인 수는 5천여명이며 이중 약 25%는 관광업에 종사한다.

현지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는 한 교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민들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에는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봤는데 최성수기인 연초부터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걱정된다”며 “괌은 안전하고 평화로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 계속해서 악재가 발생해 관광객이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 정성준 기자

지난해 5월 괌에서는 4등급(카테고리 4) ‘슈퍼 태풍’ 마와르가 상륙하면서 괌 국제공항이 폐쇄돼 3천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일주일 넘게 현지에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현지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 관광시설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괌 여행 정보 관련 각종 카페나 게시판 등에는 이번 사건을 공유하며 괌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현지에 관광업을 하는 또 다른 한인인 “걱정된다는 문의가 들어오긴 하지만 대거 여행을 취소하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며 “범인이 빨리 잡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 민심 회피하려는 몰타기”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몰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 이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2부속실 설치의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알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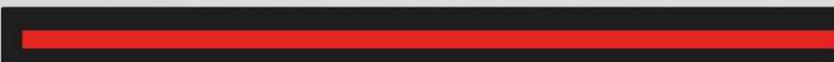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LIVE

수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부터 수출 관련 자금조달, 수출보험 가입, 수출대금 회수까지 K-SURE가 수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ksure



인사권 독립됐지만... '반쪽 개정'에 지자체·지방의회 갈등 반복



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원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반쪽짜리' 권한에 그쳐 경남지역 기초단체와 의회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른다.

조직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탓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켰다.

제103조 2항에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각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의장이 승진 인사를 내는 곳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찰도 빚는다.

경남 통영시는 2022년 말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의장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시의회와 갈등을 겪었다. 의장이 지난해 말 5급 1명과 8급 1명을 자체 승진시키자 시는 이에 반발해 시의회에 파견했던 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 1명을 시로 복귀시켰다.

2021년 12월 안정적인 인사 운영과 승진 기회 균형 유지 등을 위해 두 기관이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시의회가 자체 인사를 내면서 협약 목적과 취지를 잃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통영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에 업무협약 종료 공문을 보내 인사 교류를 중단하고 교육훈련과 후생 복지를 비롯해 청사·물품 관리나 전산시스템도 의회가 자체 운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5일에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을 제외한 체 같은 당 소속 시장

규모 작은 의회 직원 승진 두고 집행부 측 "사기 저하" 반발 예산·조직권 등 여전히 지자체장 권한...전문가 "협치 절실"

을 만나 올 하반기 의원단 구성 때부터 다시 공무직 등 인력을 시의회에 파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장 패싱'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통영시와 시의회는 2022년에도 똑같은 일로 충돌했다가 지역구 국회의원 중재로 시장과 의장이 인사 운영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4급 사무국장 승진은 시장이, 이후 발생하는 5급 이하 인사권은 의장이 행사하는 방식이었다.

김미옥 시의회 의장은 이 합의에 따라 5급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무엇보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을 갖게 된 만큼 정당하게 낸 인사라고 반발했다.

또 직원 한 명이 정년퇴직하면서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음에도 시가 시의회 독립성을 무시한 채 규모가 작은 시의회 조직 구조를 약점 잡아 황포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의령군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빚어졌다. 군의회가 지난 4일 군의회 소속 A씨에 대한 5급 승진 인사를 내자 군 집행부 측은 군의회가 인사 협약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군에 따르면 군과 군의회는 2022년 1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별도 협의 시까지 군의회 직원은 군에서 군의회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군의회와 상호 협력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군의회가 인사를 단

행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는 지난 5일 "군의회가 비상식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승진 인사를 강행해 의령군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등 원성이 극에 달했다"며 "A씨는 경력과 현 직급 승진일 등 모든 부분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수년이 뒤처지고 있음에도 이번에 승진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군의회 관계자는 "A씨가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경남도지사 표창 등 성과가 있고 그간 집행부 주요 부서를 거쳤다"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인물이 아니며 의회 인사위원회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갈등은 입법 당시부터 예견됐던 사태라며 제도 개선과 함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형빈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예산이나 조직권 부분 등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있어 두 기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지자체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 법 개정 초창기인 만큼 두 기관 협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김민재 기자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적힌 '바다남' 낙서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 낙서...경찰 수사

범인 잡아도 벌금 10만원... 경범죄처벌법 적용될 듯

울산의 관광명소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일반인들이 흔히 다니는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지자체가 발견 당일 제거 작업을 끝내 지금은 낙서가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돼 있고 낙서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노건우 기자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벌금 1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을 크게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으로 나누는데, 바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북공 담벼락 등 문화재나 공공시설물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범구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서울교통공사 MZ노조, 개별교섭권 확보...공공기관 첫 사례



간부 무단결근! 시민안전 위협! 노동자 사익 가산 시해하고 버버행위 노조간부 서울지하철 MZ노조, 양대노조 비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5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체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

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다른 노조와 별개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조

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이른바 MZ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얻은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공사에는 3개 노조가 있다.

지난해 공사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양대 노조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제1노조 1만146명, 2노조 2천742명, 3노조 1천915명이다.

/ 최민성 기자

사재출연 압박에도...태영 윤석민 회장, 그룹 지주사 우회 지원 윤석민, 티와이홀딩스 영구채 인수...계열사 매각자금과 같은 규모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문제 등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계열사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이 아닌 그룹 지주사에 우회 지원하는 데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오너의 사재출연 등을 요구한 채권단과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티와이홀딩스는 5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416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이율은 4.6%, 만기는 30년이다.

이는 윤 회장이 티와이홀딩스의 채권을 인수했다는 의미로, 업계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윤 회장의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자금규모와 같다는 점에서 윤 회장이 이 신종자본증권을 대가로 지분 매각 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이 태영건설 지원에 사재를 출연한 것이 아닌, 자신이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에 대출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윤 회장이 안정적인 자금 회수를 위해 일종의 우회 로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지분 매각액 416억원을 포함한 총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 지원에 모두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채권단 측은 실제 투입된 자금이 이보다 훨씬 적다는 입장이다.

태영 측은 매각자금 1천549억원 중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사용했는데 이는 태영건설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채권단 측의 판단이다. 채권단은 태영에 자구계획 즉시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채권 발행으로 태영과 채권단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티와이홀딩스 측은 이에 대해 "태영건설에 투입된 윤 회장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일각의 사재 대출 의혹을 반박했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윤 회장이 출연한 자금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는데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 해 돈이 줄어들고, 대어는 윤 회장이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자를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신종증권 발행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 조현민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섬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

한동훈 “함께 해달라” 입당 제안…이상민 “숙고하겠다”

휴일 종로구 식당서 오찬…이상민 “상당 부분 의기투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과 이 의원은 이날 종로구 한 식당에서 만나 한 시간가량 기량 오찬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오찬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에게 저와 같이 가달라고,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상당 부분 한 위원장과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당 합류, 국민의힘 입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구를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



한동훈, 민주당 탈당 이상민과 오찬 회동

난해 1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그동안 이준석·이낙연 신당 합류 등 거취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이 의원이 이날 한 위원장과 전격 회동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쪽에 무게를 실

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여론 일각에서 나온다.

이 의원은 이번 만남에 앞서 “며칠 전에도 새해 인사 겸 (한 위원장과) 문자를 받고 전화 통화는 했다”며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인연을 계기로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의 목표 비전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나라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실 것”이라며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고 해주십사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청도 드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이 의원은) 관록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치인이시고, 여러 경험과 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화답했다. 이어 “이 의원과 제가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은 생각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당에) 별로 힘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송원기기자

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

1. 5.(금) 11:00 장소 | 국회 복판 228호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혜택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부터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듦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서종익 기자

조태열 “재판거래” 불릴만한 행위 안했다 최소한의 소통한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과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다수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법원이 관련 국제법 원칙과 국

제 관행,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 내용, 판례, 학술 등 재판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을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 희망대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

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와 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여러 차례 만났다고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명시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는 질

의에 “법원행정처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관련자들에게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외교부 제출 자료의 내용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 또는 조율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의사가 있는지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질의에 “기회가 된다면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고 해법의 취지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 최영민 기자

이준석·이낙연, 9일 한자리에…제3지대 총선 연대 불붙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또 다른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한자리에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의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CBS 노컷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양당(이준석 신당·이낙연 신당)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며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명했다. 다만 “아직은 하겠다는 것마저도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 전 대표와는) 신년 인사 정도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창당 행보 속도가 늦춰진 것을 두고는 “유승민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각자 행보를 빠르게 경쾌하게 갔으면 지금 정치 상황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피습사건 때문에 예상했던 일정보다 조금 늦게 움직일 것 같은데, 시너지가 나는 형태로 야권에 제3지대 구축된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정치

이준석 “이낙연과 연대 가능…당 합쳐 지역구 출마할 수도” 문병호·안영근 등 12명, 이준석의 ‘개혁신당’ 합류 선언

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한다고 5일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한다.

제3지대 정당을 창당했거나 창당을 준비중인 4인방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날을 계기로 ‘빅텐트’ 정계 개편에 불이 붙을 지가 관련 포인트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에 앞서 총선 연대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 줄 정도의 과격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의외의 면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같이 모여서 한 당을 만든다고 하면 각자의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되게 돼 양 세력 간 다툼이 생기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당을 합쳐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설

행보에 당장 제동이 걸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제3지대 빅텐트 추진을 조속히 도모해보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20일째 창당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개혁신당은 이날 세불리기에도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인 문병호 전 의원과 재선 출신인 안영근 전 의원 등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자 12명은 이날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 이윤성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나의 오랜 무관심에 방치된 내 퇴직연금

먼 훗날 힘없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구해줘! 퇴직연금

주해직 퇴직연금

방치된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하세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DC·IRP 계좌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검증된 최선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장점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시간, 관심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어 퇴직연금 장기수익률 제고를 돕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존 DC·IRP 가입자도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퇴직연금 상담센터 1588-1122 | www.shinhansec.com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고객님의 사전지정상품으로 선정하시면 되며, 해당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DC, IRP)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이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2176호(2023년 12월 14일~2024년 11월 30일)

신한투자증권

동남아 경찰 섭외해 21년 지기 체포시키고 돈 뜯은 일당

성매매 적발 뒤 석방 미끼로 13억원 갈취...주범 징역 5년

21년 지기를 상대로 동남아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도록 연출한 뒤 석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범들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수단과 방법, 공범의 수, 피해액에 비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특히 박씨는 20년 이상 친구로 알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피의자

이들은 지난해 7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징역 5년은 살 것 같다, 100만달러를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거 같다"며 13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미리 설계된 '셋업(Set up) 범죄'(범죄를 저지를 의도

가 없는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몰아간 뒤 돈을 뜯어내는 방식)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2년께 골프장에서 처음 만나 20년 넘게 모임에서 골프를 친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포함한 골프 친목 회 회원들과 지난해 6월 30일 캄보디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체포조'로 나설 캄보디아 경찰을 섭외했다.

이어 권씨 주도로 A씨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했고, 이튿날 캄보디아 경찰은 약속대로 A씨와 권씨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압송했다. 박씨는 다른 자금책을 동역으로 내세워 돈을 주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구금될 것처럼 압박했고, A씨는 이튿날 13억원을 국내 계좌로 보내고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일당은 귀국 뒤 추적을 피하고자 은행을 돌며 13억원을 큰 액면에서 작은 액면의 수표로 쪼개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산 피해 중 일부인 7억5천만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강성준 기자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검거

중국서 배 타고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징역형

중국에서 배를 타고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 53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km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 뒤 해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를 통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 대천항 해상과 해

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던 21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기 안산 소재 지인의 집으로 달아나 나머지 1명까지 추적 끝에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밀입국 브로커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전날 오후 중국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배도혁 기자

고양·양주서 잇단 살인사건...경찰, 지문으로 동일범 소행 확인

경찰 용의자 공개수배 전환 당일 양주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경기 북부지역에서 야간에 홀로 다방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이 6일 간격으로 잇달아 살해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확인한 결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으로 확인돼 용의자 이모(57)씨를 공개수배하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살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1일 오후 3시께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 다방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목 졸림 흔적이 있는 시신 상태 등을 조사한 경찰은 타살로 판단해 용의자를 추

적해왔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CCTV로 용의자 이씨를 특정했으나 이씨가 도주 중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행동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점 등 뚜렷한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은 점도 수사를 어렵게 했다.

결국, 사건 발생 6일 만인 이날 경찰은 도주 중인 용의자 57세 남성 이 모 씨를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추적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의 공개수배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다방에서도 6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다방은 사장인 B씨와 직원 1명이 운영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



다방 살인 용의자 이모씨

밤에 이씨가 다방에 찾아왔고 직원이 퇴근하고 B씨와 이씨 둘만 가게에 있었을 당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음 날인 5일 오전 가게에 출근한 직원이 소파에 쓰러져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몸에선 목이 졸리는 등 폭행 흔적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용의자 인상착의, 도주 경로 등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수배된 이씨는 키 170cm, 민머리이며 검은 모자와 노란색 점퍼,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반복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이며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에 약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시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이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파악해 이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창녕 잠긴 차량서 의식 희미한 원로배우 남포동 씨 구조



남 씨를 밖으로 꺼냈다. 차 안에는 술병과 뒤통이를 태운 듯한 양동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씨가 말은 하는데,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구조 당시를 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영화 투깝스 2·3 등 1980~2000년대에 걸쳐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한 원로배우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겪어 왔다.

그는 온천으로 유명한 창녕군 부곡면의 한 모텔에서 오랫동안 살기도 했다.

/ 박소희 기자

5일 오후 1시 14분께 경남 창녕군 부곡면 창녕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로배우 남포동(79)씨가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구조됐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차 안에 사람이 혼자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이 차량 창문을 부수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중동 확산 위협하는 헤즈볼라·후티, 연일 서방 상대 으름장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5일 TV 연설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예멘 반군 후티가 서방을 상대로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5일 A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TV 연설에서 하마스 3인자 살레흐 알아루리가 레바논에서 폭사한 사건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의 성격을 바꿔놓았으며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나스랄라는 "레바논 사람 전체가 (공격에) 노출될 것이기에 이번 일에 침묵할 수 없다"며 침묵이 조래할 결과가 보복당할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알아루리 정치 부국장이 공습에 사망했으며 미국 당국자는 이 공습이 이스라엘이 가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레바논 정부는 자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했고,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비난을 쏟아부으며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나스랄라가 TV 연설에 나선 것은 4차례로, 그중 이날을 포함해 2차례가 알아루리 폭사 이후에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나스랄라는 이날 남부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벌이고 있는 교전이 이스라엘에

헤즈볼라 지도자 "하마스 3인자 암살에 대응 불가피" 후티 지도부 "미 주도 흥해 다국적 연합 참여국, 표적 될 것"

점령된 영토 해방을 위한 '역사적 기회'를 열었으며 확산 시 첫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스라엘 북부 주민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하마스의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이 곧장 반격에 나선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8일부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과 미사일을 쏘는 등 공격을 이어 왔다.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해 반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 관리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더 강한 군사작전을 벌이겠다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 극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자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알아루리 폭사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갈등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중대한 고비를 맞은 것으로 지적된다.

나스랄라는 이날 헤즈볼라의 대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발언이 헤즈볼라의 본격적인 대응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이란 대리세

력이 이라크 등지의 미군을 상대로 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팔레스타인 지지를 위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표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는 친이란 후티 반군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거듭 경고했다.

후티 지도부인 최고혁명위원회의 모하메드 알리 알후티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이 공격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날 영국 B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다국적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는 어디든 해상 안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국은 지난달 다국적 함대 연합을 꾸리고 서방 주도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후티 반군은 이날 사나에서 수천명을 동원해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위자들은 팔레스타인과 예멘 국기, 후티 최고지도자인 압둘말리크 알후티의 사진을 들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APTN-DPA 통신이 전했다. / 객준현 기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결정한다...2월 8일 변론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여하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州)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있다. 부인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 오정민 기자

'블랙핑크 리사와 열애설' 루이비통 넷째, 시계부문 CEO로

프레데릭 아르노, LVMH 시계 부문 책임자 승진



프레데릭 아르노

프랑스 '명품제국'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베르나르 아르노(74) 회장의 아들 프레데릭 아르노(29)가 LVMH의 시계 부문 책임자가 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LVMH는 이날 프레데릭 아르노가 태그호이어와 위블로, 제니스 등 브랜드를 보유한 LVMH 시계 부문 최고경영자(CEO)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승진에도 프레데릭은 계속 시계·주얼리 부문 CEO인 스테판 비앙키에게 보고하게 된다.

아르노 회장의 다섯 자녀 중 넷째인 프레데릭 아르노는 2017년부터 일한 태그호이어 브랜드에서 2020년부터 CEO를 맡았다. 프레데릭은 지난해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와 미국이나 프랑스 등지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돼 온라인에 떠도

는 등 열애설이 난 바 있다.

이번 인사로 아르노 회장의 자녀들이 LVMH 내 자리를 더욱 굳히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글로벌 재력가 순위를 다투는 아르노 회장은 은퇴 의향을 내비치지는 않아 왔다. 만인인 장녀 델핀(48)은 지난해부터 그룹 내 2번째로 큰 패션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 쿠튀르의 회장 겸 CEO를 맡고 있다.

장남인 앙투안(46)은 올해 초 남성복 브랜드 벨루티 경영에서 물러나 2024년 파리 올림픽 후원 계약 협상에 나서는 한편, LVMH 지주회사인 크리스찬 디올 SE의 CEO를 맡고 있다.

"일본 노토강진 피해액 7.5조원 추산...동일본대지진의 4.8%"

명목 GDP 5천800억원 감소 영향...개인소비 위축되면 더욱 확대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파손된 주택과 공장, 도로 등의 피해액이 8천163억엔(약 7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민간 추계치가 나왔다.

6일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재해의 전체 모습이 밝혀지지 않아 잠정적인 추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우치 연구원은 노토반도 지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재해지에서 1만9천여동의 주택이 완파되거나 일부 파손됐다고 가정하고 전기와 가스 등 인프라 시설과 농지 등의 피해를 포함해 이같이 계산했다.

일본 내각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액을 약 16조9천억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피해액은 약 4조6천억엔으로 각각 추산했다.

노토강진 예상 피해액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의 약 4.8%에 해당한다.

노토강진은 올해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약 640억엔(약 5천800억원)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이시카와현 시카마치의 한 주택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

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연구원은 물류망 단절이나 정전 등으로 인해 명목 GDP가 640억엔 줄어든 것이라면서 자축 분위기로 개인소비가 위축되면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추계에는 복구와 부흥 공사로 GDP가 증가하는 효과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노토강진이 발생하고 옛세제를 맞은 이날 지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98명으

로 집계됐다.

이시카와현이 집계한 '연락 두절' 주민 수는 222명에 달한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전날 오후 현재 14개 기초자치체에서 약 6만6천 가구가 단수, 2만7천 가구는 정전 상황을 겪고 있다. 피난소 약 370곳에서는 3만 명이 이상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 김민성 기자

모두에게 처음

The Kia EV9

KIA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주입감시인 심의결 제2023-3946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금융상품 관련 제약을 제갈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유리경영 위한 사실이나 계산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 ibkcfics@ibk.co.kr)

안덕근 산업장관 첫 행보 '수출 챙기기'...자동차 수출항 찾아

마케팅 지원·시장 다변화·수출저변 확대 '3대 방향' 제시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취임 후 첫 행보로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항을 찾아 사상 최대 규모인 7천여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이날 한국의 대표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의 기아차 전용 부두를 방문해 자동차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평택항은 14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량 1위를 지킨 항구다. 한국 자동차 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해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로 불린다.

안 장관은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과 박명래 상무, 현대차·기아 신승규 전무, 현대글로벌 김태우 전무 등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를 파악하고, 중동으로 향하는 글로벌 스키아호에 직접 올라 자



수출 선박 주유시설 둘러보는 안덕근 장관

동차 선적 현장을 둘러봤다.

안 장관은 "작년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수량 및 단가 모두 호조세를 보여 역대 최대인 709억달러를 달성, 수출 플러스를 견인했

다"며 "올해도 북미·유럽의 친환경차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작년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부

진했던 가운데 자동차는 수출을 떠받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 속에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2년 541억달러에서 작년 709억달러로 31% 급증했다. 전기차 등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차의 수출 비중이 높아져 수출단가도 2022년 2만 1천달러에서 2023년 2만3천달러로 10% 올랐다.

안 장관은 이어 "수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천억달러 달성의 기폭제가 돼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마케팅, 금융, 인증 등 3대 지원 인프라 강화 ▲ 시장 다변화·품목 고부가가치화 ▲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의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 손현수 기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주현

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영, 채권단과 신뢰 형성 안돼...날짜 많지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태영그룹 [009410]과 채권단) 상호 간 신뢰 형성이 안 된 것 같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만한 안을 빨리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태영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이 채권단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채권단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출발점은 문제 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주주가 진정성 있게 (자구노력) 한다는 믿음을 채권단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상호 간 신뢰 형성이 안 된 거 같다"며 "이 정도는 돼야 워크아웃이 성공한다"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오는 11일(1차 채권단협의회)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태영인터스트리 매각대금

1천549억원을 둘러싸고 태영그룹과 채권단의 해석이 엇갈리는 데 대해 "워크아웃의 속성상 밀고 당기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영그룹은 태영인터스트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했다고 발표했지만, 채권단은 TY홀딩스 연대보증채무 상환액(890억원)을 태영건설 자구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밀고 당기는 과정은 불가피하지만,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워크아웃을 한 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만한 안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게 채권단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우려가 롯데건설에도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롯데건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작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했고, 태영건설과 건설사 성격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 민성규 기자

GS건설, '현장 안전경영' 본격화 '안전점검의 날' 재개

허윤홍 대표, 신림~봉천 터널 도로 건설현장 찾아 점검

건설 현장에서 신년식을 개최하며 '안전경영'을 강조한 GS건설[006360] 허윤홍 대표가 본격적인 현장 안전경영 행보에 나섰다.

5일 GS건설에 따르면 허 대표는 전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안전 점검의 날'을

재개했다.

안전 점검의 날은 수해조직원과 지원조직의 임원이 한조를 이뤄 타 사업부 시공 현장을 둘러보며 객관적 입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운영됐다. 안전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허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은 이날 국내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왼쪽)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임원들은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중 하루를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허 대표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신림~봉천 터널도로 건설공사 2공구 현장을 방문해 환기소와 중점부 등을 직접 돌아보며 공사 진행 경과와 주요 이슈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허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공사 현장에서 시무식 행사를 열고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안전과 품질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노승만 기자

부산 문화 담은 '돼지국밥 라면' 스타트업, 패션 브랜드와 협업



부산 향토 음식 돼지국밥 맛을 내는 라면을 출시한 스타트업과 패션 브랜드 '발란사'가 협업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부산 스타트업 '테이스티키친'은 6일 발란사와 협업으로 '발란사라면' 1만개를 한정판으로 제작해 오는 24일까지 부산 KT&G 상상마당 2층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발란사라면은 돼지국밥 라면의 포장에 발란사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디자인하고, 포장 안에 발란사라면 '피뽀뽀부썰'(띠고 불이 고 뜨고 불이는 스티커)을 넣어 젊은 층을 겨냥했다.

이 제품은 테이스티키친이 '라면, 부산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

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부산이라면' 프로젝트의 세 번째 협업 제품이다.

첫 번째 협업 제품은 지난해 6월 선보인 '대선이라면'이다. 부산 향토 소주인 '대선' 1개와 소주잔 2개, 돼지국밥 라면 3개를 한 팩으로 내놨는데 300개 한정판이 조기에 완판됐다.

덕분에 '대선이라면'은 부산 유동산공원에 있는 대선 브랜드 스토어 'c s'에서 상시 판매된다.

두 번째 협업 제품은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의 말 캐릭터 '개알이'를 활용한 열쇠고리와 돼지국밥 라면을 세트로 꾸며 내놓은 '개알이라면'이다. 이 제품도 인기를 끌며 부산경남경마공원 내 편의점에 입점하게 됐다.

육수 분말 스프, 생새우젓 분말 스프, 맴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고추 양념 스프 등으로 구성된 돼지국밥 라면은 지난해 5월 출시 후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장이 점차 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동백상화와 스파랜드, 김해공항 갈매기 상점을 비롯한 부산 시내 여러 매장은 물론 무인양품 수도 권 매장 3곳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 강희수 기자

LG로봇 클로이로 동남아 골프장서 스코어 확인하고 음식배송까지

LG전자의 안내·배송 로봇인 LG 클로이 가이드봇과 LG 클로이 서브봇이 동남아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 등으로 진출한다.

LG전자는 최근 골프장 운영 솔루션 사업자인 스마트스코어와 2년간 1천 200여대의 안내·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280억원 수준으로, 해외의 단일 공급처 매출로는 최대다. 스마트스코어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6개국 골프장 사업 진입과 차별화를 위해 LG전자와 손을 잡았다. LG전자가 로봇과 솔루션을 판매하면 스마트스코어가 이를 설치, 운영한다.

고객은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통해



골프장, 호텔 체크인·체크아웃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진행 중인 골프 게임의 스코어도 확인할 수 있다. 로봇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광고 중인 골프 클럽과 의류도 화면을 통해 바로 결제할 수 있다.

국제로봇연맹(IFR)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362억달러(약 46조원)에서 오는 2026

년 1천33억달러(약 132조원)로 연평균 23%가 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로봇을 미래 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호텔, 병원, 식음료(F&B)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또 성능과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클로이 서브봇을 앞세워 북미, 일본 등 해외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염인욱 스마트스코어 해외사업부문장(상무)은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산업 전문성과 LG전자의 로봇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기업간거래(B2B) 사업 창출을 위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홍명섭 기자

[Web발신] [OO보건소] 031-XXX-XXXX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특강 안내드립니다
 시간 : 12월 18일 월요일 19:00~20:30
 장소 : 보건소 2층 대강당
 선착순 참여로 참석 여부 회신주세요

오후 2:05

오후 2:06

아이와 함께 참석이 가능할까요?

네, 아이 동반도 가능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특강!
 12월 18일 월요일 19:00~20:30
 장소 : 보건소 2층 대강당
 선착순 참여로 참석 여부 회신주세요

오후 2:06

수원특례시 민원접수

오후 2:07

네~ 참석할게요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혁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수원특례시포럼 2404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3.11.7 기준)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kt

- 좋아하는 일 찾기
- 건강하기
- 더 많이 웃기

새해 바라는 거 다해

꿈꾸는 일 다 이루는
행복한 2024년 되세요



노인회 만난 오세훈 “사노여천...하늘처럼 섬기고 모실 것”

대한노인회 신년간담회 참석...“어르신이 행복한 서울 만들겠다”



대한노인회 신년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어르신을 하늘처럼 돌보고 섬기는 ‘사노여천(事老如天)’의 마음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구 서울파트너스 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25개 자치구 지회로 구성돼 서울시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6개 노인대학과 3천400여 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은 171만 서울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노인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노인회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앞서 정치권에선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됐던 민경우 전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알려져 사퇴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노인회에 사과하면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최추현 기자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출범

특례시 발전, 시민 손으로 수원시, ‘시민 포럼’ 출범

경기 수원시는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아 관한 확보 등 특례시 발전을 위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 포럼’에는 청년 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와 교수,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5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특례제도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4개 분과와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로 이뤄진 정책자문지원단에 속해 활동하게 된다.

현안 이슈와,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를 4대 전략으로 정해 시민 의견을 담은 특례 권한을 발굴할 계획이다.

다른 특례시·유관 기관과도 협력·연계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 실질적

인 특례시 완성을 위한 재정·경제 특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수원시청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포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수원의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는 데 수원시민 포럼의 힘이 필요하다”며 “다른 특례시 시민들과 연대해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해 시민 의견을 담은 특례 권한을 발굴할 계획이다.

다른 특례시·유관 기관과도 협력·연계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 실질적

/ 한수진 기자

BNK금융그룹, 2030 비전 선포...총자산 300조원 달성 목표



BNK금융그룹은 5일 오후 부산 남구 드림씨어터에서 ‘뉴 비기닝 2030 비전 선포식’을 열고 중장기 그룹 발전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BNK금융그룹은 빈대민 회장을 비롯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 1천60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지주를 중심으로 계열사의 긴밀한 협력과 시너지 효과 발휘로 그룹 총자산 300조원 이상, 당기순이익 2조2천억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또 이를 위한 미션을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비전을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으로 각각 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6년까지 디지털 경영체계 초석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사업 다각화 등으로 내

실 있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2030년까지 초일류 금융그룹을 완성하기 위해 ▲미래성장 토대 마련, ▲차별화된 사업모델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고객 중심 마케팅,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운영모델 선진화 등 5대 전략 방향을 내놨다.

BNK금융그룹은 앞서 그룹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계열사 대표들이 내부통제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는 행사를 열었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천억원이 넘는 회사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송원기 기자

도시와 커피의 만남...누에 단백질 들어간 ‘진주 실크커피’

2022년 향토 관광 상품으로 출시...지역 스토리텔링 결합해 해외 판로 개척



진주 실크커피 행사

경남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향토 관광 상품으로 2022년 출시된 진주 실크커피가 대만 수출까지 해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커피를 개발한 실크커피는 진주실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친소비자 영업으로 지속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6일 순실크 등에 따르면 진주는 1980년대까지 ‘실크의 도시’였다. 당시 실크 관련 업체만 130개에 달했으며 지역 총생산

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시설 투자 등에 소홀하고 경쟁력이 줄며 빠르게 쇠약했다.

실크커피 ‘뉴퐁’은 과거 찬란했던 진주 실크산업을 상징하면서 지역 특색과 스토리를 보유한 새 상품을 만들려는 시도 속에서 탄생했다. 실크 명산지인 진주와 현대인의 필수 음료인 커피라는 소재를 융합해 향토산업형 관광 상품을 만든 것이다.

원재료에 누에 분말 단백질을 넣어 탄

맛, 쓴맛이 적고 풍미가 뛰어난 특징이 있다. 실크 단백질 성분이 원두를 감싸는 코팅 효과 덕분에 공기, 수분, 햇빛에 강해 본연의 향과 맛을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 최상급 생두인 아라비카 스페셜 생두(페루 게이샤) 등 총 3가지 아라비카 생두를 브랜딩했다.

이렇게 출시한 실크커피는 1년 동안 5천만원 상당 팔렸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 커지는 추세다.

지역 커피의 상징성으로 기관, 기업에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며 농협 로컬푸드와 입점 협의도 진행 중이다.

시와 순실크는 지역 중심 판매처를 통해 손쉽게 실크 커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홍보 마케팅을 기획 중이다.

최근 판매 협력업체가 대만에 사업체를 설립해 건물을 계약했으며 이곳을 실크커피를 포함해 지역 생산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신지호 기자

750년 역사 안동소주 품질기준 마련 “안동 곡류로 안동서 제조”

경북도는 4일 경북을 대표하는 전통술 중 하나인 안동소주의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안동소주는 안동에서 생산된 곡류를 100% 사용하고 안동에 있는 제조장에서 생산한 증류식 소주여야 한다.

또 쌀을 쓸 경우엔 수분 16% 이하, 쌀라기 7% 이하, 이물 0.3% 이하 등 원료 쌀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안동소주는 증류원액, 정제수 외에 첨가물 사용이 금지되고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 금지된다.

알코올 도수 30% 이상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숙성을 거쳐야 한다.

숙성할 때 오크통 숙성은 가능하지만 오크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는 안동소주를 고급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제조업체, 대학, 공무원 등과 합의해 원료, 제조원, 품질별도 도지



사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스코틀랜드 수출상품인 스카치위스키처럼 안동소주 품질을 높여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지난해 초 ‘안동소주 세계화’를 선언한 뒤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 박정훈 기자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02.16 - 25
BEXCO
BUSAN
KOREA

BUSAN 2024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금융을 **새롭게** 신한이 한 다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이제 슈퍼 SOL 하나로 끝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한번에
진짜 다 돼?

나를 중심으로
모든 기능이
사각 - 다 모여!

슈퍼하게 쉬고
슈퍼하게 빨라서
이것만 쓰면 될걸?

꼭 필요한
기능만 어찌어찌
모으는거?



은행부터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의 모든 금융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energy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분산발전 #전기차 충전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솔루션 #Mobility #Platform

작품명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으로
 신재생 에너지 직접 생산부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까지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SK에너지의 **그린픽처**

전광석화처럼 MLB 계약한 고우석 “기쁨보다 안도감 먼저 들어”

“내 가치 확인하고 싶어 포스팅 신청...MLB 진출 허락한 LG 구단에 감사”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KBO리그 불펜 투수 가운데 역대 최고 대우를 받은 고우석(25·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6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적지 않은 야구팬이 고우석을 보기 위해 기다렸다. 샌디에이고 구단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끌고 당당하게 입국장을 빠져나온 고우석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밝은 미소는 잃지 않았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7시가 포스팅 협상 마감이었던 고우석은 샌디에이고 구단의 최종 제안을 받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위해 3일 오후 부랴부랴 미국을 향해 떠났다.

고우석이 스스로 “(만료) 7분 전에 계약 성사됐을 정도로 걱정했는데, 딱 성사되고 나니 기쁨보다는 안도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

이틀 밤은 비행기에서 보내고, 샌디에이고 호텔에서 딱 하루만 쉬어 사실상



펫코파크에서 포즈 취하는 고우석

‘1박 4일’의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그사이 그는 미국을 왕복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계약서에 사인하고, 홈구장인 펫코 파크를 찾아 팬들에게 인사를 남기는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고우석은 계약 기간 2+1년, 최대 940만달러(약 123억원)를 받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2년 동안 400만 달러를 보장받고 성적에 따라 구단이 옵션을 실행하면 3년째 300만 달러를 더 받는다. 이때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240만 달러를 더 받는다. 구단이 2년 뒤 옵션을 실행하지

않으면 고우석은 바이아웃 50만 달러를 받고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고우석은 현재 KBO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구위를 뽐내는 마무리 투수다.

2017년 LG 트윈스에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한 그는 지난해까지 통산 7시즌 동안 19승 26패 139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점 3.18을 남겼다.

2022년에는 4승 2패 42세이브 평균자책점 1.48로 LG 선수 최초의 40세이브를 달성했고, 지난해는 부상 여파로 정규시즌 3승 8패 15세이브 평균자책점

3.68로 고전하면서도 한국시리즈에서는 29년 만의 LG 우승에 힘을 보탤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해외 진출 자격을 갖춘 그는 LG 구단의 동의를 얻어 MLB 무대에 도전장을 냈다. 계약 총액은 LG 구단이 설정한 빅리그 진출 허가 기준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LG 구단은 선수의 꿈을 위해 승낙했다.

고우석은 “포스팅 신청을 한 것은 내 가치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며 “LG 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샌디에이고가 그에게 기대하는 임무는 마무리 투수다.

고우석은 일본프로야구 출신 왼손 구원 투수 마쓰이 유키, 오른손 강속구 투수 로베르토 수아레스와 2월 중순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열리는 스프링캠프에서 소방수 경쟁을 벌인다. 이에 대해 고우석은 “아직 완전한 메이저리거가 된 것은 아니다. 스프링캠프에서 경쟁을 이겨내야 (보직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최준용 기자



다시 뛰어오르는 유영

피겨 유영, 부활의 날갯짓...종합선수권 쇼트 2위

프리 결과 따라 국가대표 복귀·세계선수권대회 출전 도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영(19)이 제7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쇼트프로그램에서 ‘깜짝’ 2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을 높였다.

유영은 6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10점과 예술점수(PCS) 31.86점을 합쳐 총점 68.96점을 받아 신지아(69.08점·영동중)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오랜 기간 한국 피겨 여자 싱글의 간판으로 활약하던 유영은 베이징 동계올림픽(6위), 2022 세계선수권대회(5위)에서 정점을 찍은 뒤 부상과 부진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는 지난 시즌에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2차 선발전에서 각각 11위에 그치는 부진 속에 태극마크까지 반납했다.

유영은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에 자비로 출전했으나 각각 11위, 8위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해에 열린 차기 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도 185.29점으로 8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유영은 이번 대회 쇼트프로그램을 2위로 마치며 부활의 날갯짓을 했다.

그는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프리스케이팅 경기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 국가

대표 복귀는 물론, 3월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까지 노릴 수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16세 이상의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이번 대회 상위 3명의 선수에게 출전권이 주어진다.

다음 시즌 여자 싱글 국가대표는 총 9명이 선발되며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 합산 점수로 가려진다.

이날 유영의 연기는 깔끔했다. 그는 첫 연기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투투프 콤비네이션 점프, 두 번째 과제인 더블 악셀을 모두 클린 처리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는 플라잉 카멜 스피노와 레이백 스피노를 모두 레벨 3로 처리하며 가벼운 몸놀림을 유지했다.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플립은 어텐션(에지 사용주의) 판정이 나왔으나 유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노와 스텝시퀀스를 모두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수행하며 경기를 마쳤다.

쇼트프로그램 1위는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신지아가 차지했다.

신지아는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러츠를 뛰다 착지에서 흔들리며 기대 수준의 점수를 얻진 못했다.

3위 자리는 68.43점을 받은 이해인(세화여고)이 올랐다.

/ 이윤주 기자

임성재, PGA 투어 개막전서

이틀 연속 맹타...공동 2위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4 시즌 개막전에서 이틀 연속 맹타를 휘두르며 상위권을 지켰다.

임성재는 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의 플랜테이션 코스(73)에서 열린 더 센트리 2라운드에서 버디 8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7언더파 66타를 쳤다.

1,2라운드 합계 15언더파 131타를 적어낸 임성재는 티릴 해턴(잉글랜드), 브렌던 토드(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하루 동안 9타를 줄여 중간 합계 16언더파 130타로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위 그룹과는 1타 차이다.

임성재는 드라이브 샷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정교한 아이언 샷으로 그린 적중률 89%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임성재는 1번홀 버디를 2번홀 보기를 맞바꿨지만 이후 3개홀 연속 버디를 뽑아냈다. 9번홀 버디 뒤에는 한동안 버디 퍼트가 홀을 빗나가 타수를 줄이지 못했던 임성재는 15번홀부터 4개홀 동안 3타를 줄이며 둘째날을 마쳤다.

임성재는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도 덜 불어서 경기하기 쉬웠다”며 “남은 라운드에서 다른 선수들도 좋은 스코어를 낼 거 같은데 저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



센트리 2라운드에서 공동 2위에 오른 임성재

이겠다”고 말했다.

안병훈은 18번홀(파5) 이글에 힘입어 9타를 줄이며 공동 5위(중간 합계 14언더파 132타)로 뛰어 올랐다.

18번홀에서 드라이버로 369야드를 날린 안병훈은 두 번째 샷을 홀 2m도 안되

는 곳에 붙인 뒤 퍼트로 깔끔한 이글을 날렸다. 7타를 줄인 김시우는 10언더파 136타로 공동 23위로 올랐고, 3타를 줄이는데 그친 김주형은 공동 39위(8언더파 138타)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 박성민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KR), KB계류카드 잔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YG 떠난 블랙핑크 멤버들, '4인 4색' 솔로 활동 만개



걸그룹 블랙핑크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팀 활동에 대해서만 재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으로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에 네 멤버는 월드스타급 인지도와 영향력을 앞세워 가요계·영화계·광고계를 개인으로도 종합무진으로 오가며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제니는 지난해 개인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ODD ATELIER)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에 "2024년부터 저의 솔로 활동은 OA(ODD ATELIER)라는 회사를 설립해 홀로서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저의 새로운 도전과 블랙핑크, 모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적었다.

제니는 지난해 '유 & 미'(You & Me)를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올려놓는 등 솔로 가수로도 사랑받았다. 또 자신이 출연한 미국 드라마 '디 아이돌(The Idol) OST '원 오브 더 걸스'(One Of The Girls)를 더 위켄드·릴리 로즈 템과 불러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시키기도 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 - 이효리의 레드카펫'으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KBS에 출연해 '유 & 미' 첫 방송 무대도 꾸몄다.

제니는 이 프로그램에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편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독자 레이블을) 설립하게 됐다"며 "용기를 내서 부딪혀보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안에 (솔로) 정규

제니 "연애 솔로 정규 목표"...지수,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출연 리사, 프랑스 자선 콘서트 무대...로제, 시즌 그리팅 발매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말했다.

지수는 자신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유아건강기능식품 업체 '비오맘'이 설립하는 신생 기획사 '블리수'로 향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비오맘이 최근 구인 사이트에 "아티스트와 스타트업의 만남"이라며 채용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 지수의 사진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솔로곡 '꽃'으로 큰 인기를 끈 지수는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캐스팅돼 배우로도 활약을 예고했다.

리사는 한국과 고국 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오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자선 공연인 '노란 동전 콘서트'에 K팝 여성 가수로는 유일하게 참석한다.

노란 동전 콘서트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트 마크롱 여사가 이끄는 프랑스 병원재단이 개최하는 자선 공연이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공연에는 멤버 전원이 참석했다. 올해 공연에는 리사를 비롯해 스트레이 키즈, 제이

발빈, 마룬5(마룬파이브), 퍼렐 윌리엄스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사는 지난달 태국에서 실시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집권당 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로제는 지난해 새해를 앞두고 시즌즈 그리팅(달력)을 발매해 팬들을 기쁘게 했다. 그는 눈 내리는 숲속 오두막에서 반려견 '행크'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로제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해를 알차게 보낸 것 같다"며 "사진첩을 들여다보니 올 한 해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웃었구나 싶더라. 제가 하루하루 가지각색의 나날들을 보내며 느낀 수만가지의 감정들은 26살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로제는 새해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없지만, 독특한 음색을 살려 팀의 메인 보컬로 활약한 만큼 솔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 출연한 유태오(좌측)

NYT 평론가, 오스카 남우조연상 후보로 유태오 추천... "훌륭하다" 극찬

한국계 감독 연출 '패스트 라이브즈' 출연 미국 유력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의 영화평론가가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에 출연한 한국 배우 유태오를 제96회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남우조연상 후보로 꼽았다.

NYT는 5일(현지시간) 2024년 오스카상 주요 분야에서 후보 지명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영화와 배우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 출연한 유태오는 남우 조연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NYT의 영화평론가 엘리사 윌킨슨은 4명의 후보 중 유태오에 대해서만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윌킨슨은 패스트 라이브즈를 작품상 후보로도 추천했다. 셀린 송이 연출하고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와 유태오가 출연한 패스트 라이브즈는 20여년 만

에 뉴욕에서 재회한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뒤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됐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뉴욕에서 열린 독립영화·드라마상인 고섬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이번 달에 열리는 골든글로브상 시상식 후보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비영어권 영화상, 여우주연상 등 5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다.

윌킨슨이 선정한 후보 명단은 실제 후보를 결정하는 아카데미와는 무관하지만, 투표를 앞두고 미국 유력지인 NYT를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현지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카데미 회원들은 오는 11일부터 각 분야 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고, 최종후보 명단은 오는 23일 발표된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3월 10일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다.

/ 김민경 기자

/ 최지현 기자

이효리 "주인공 병 도질까 걱정되지만 상대 배려하는 진행할게요" "MC 먼저 하고 싶다고 제안... 젊은 친구들한테 음악적 경험 배우고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랑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요. 나이가 사십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그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웃음)"

가수 이효리가 5일 오후 11시 20분, KBS 심야 음악 토크쇼 단독 MC로 방송에 돌아온다.

이효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KBS 2TV '더 시즌즈-이효리의 레드카펫' 제작 발표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 성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 시즌즈'는 매 시즌 새로운 MC가 진행을 맡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작년 2월

처음 방송됐다. 이효리는 박재범, 최정훈, 악뮤에 이어 네 번째로 MC를 맡았다.

이효리는 "제가 먼저 '더 시즌즈' MC를 맡아보고 싶다고 제작진에게 연락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딱히 하는 일이 없다 보니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흔쾌히 받아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MC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젊은 친구들한테 음악적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는 사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10년을 살다 보니 인맥이 다 잘렸어요. (웃음) 프로그램을 통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후배들의 조언도 받고 싶어요."

/ 강연주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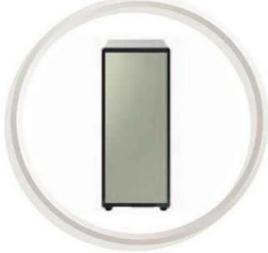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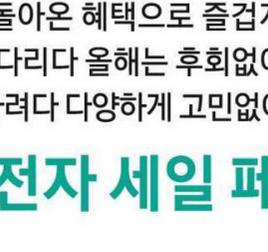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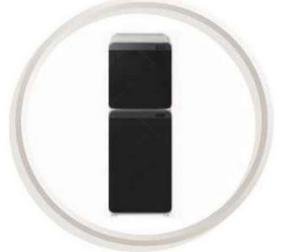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월드비전 후원 문의
02-2078-7000, www.worldvision.or.kr



SAMSUNG



혜택 1

690

다품목 구매 시 최대 690만
구매 포인트 혜택 제공
(20개 품목 구매 조건, 모델별 최대 혜택 기준)

2024 삼세페

2024.01.01 - 01.31

더 크게 돌아온 혜택으로 즐겁게 삼.세페
1년을 기다리다 올해는 후회없이 삼.세페
하나만 사려다 다양하게 고민없이 삼.세페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혜택 2

X3

추첨을 통해 구매금액의
최대3배 포인트
돌려받는 구매인증 이벤트



삼성닷컴 바로가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함께 응원합니다

•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행사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본 행사는 특별 패키지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합니다. • 본 행사는 예고없이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행사장 내 행사모델이 한하여 세부 내용은 매장에서 안내드립니다. • 삼성스마트/이마트/홈플러스/전자랜드의 경우, 한 개의 판매전표에 2품목 이상 동시구매하면 행사모델에 따라 혜택이 지급되며 동일 모델 2대 구매는 1대로 간주합니다. • 동일 판매전표 기준이며, 전표 분리시 합산 반영 불가합니다. • 하이마트의 경우, 동일한 구매자가 동일한 행사매장에서 행사기간 내 구매한 품목/모델을 합산하여 혜택이 지급되며, 동일모델 2대 구매는 1건으로 간주합니다. • 삼성스토어/이마트/홈플러스의 경우,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전 가입이 필요합니다. • 구매금액 결제 및 배송완료 D+3일 내 자동 적립되며, 대물 로지텍 배송조건입니다. (핸드캐리/자점 배송시 적립 불가) • 하이마트는 롯데멤버십 L.Point로 지급되며, 롯데멤버십 사전 가입이 필요하며, 구매금액 안분 즉시 자동 적립됩니다. • 멤버십 등급에의치는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며, 멤버십 포인트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전자권은 혜택은 캐시백으로 지급되며 삼성/롯데/KB국민/신한/NH농협/현대/하나SK 개인카드를 결제해야 하고,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 카드는 제외됩니다. • 1월 판매 1월 배송시 2월말 지급, 2월 배송시 3월말 지급, 3월 배송시 4월말 지급, 4월 배송시 5월말 지급, 5월 이후 배송건 미지급 • 구매 취소시 제공받은 혜택(포인트, 캐시백 등)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모델별 혜택과 품목수별 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